

농식품 무역 및 시장 트렌드 변화1)

유 은 영 *

1. 농식품 무역의 최근 트렌드

1.1. 전반적인 농식품 무역 트렌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계 농식품 무역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실질 가치는 6,800억 달러에서 1조 5,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1).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2008년 발생한 식품 가격 위기 사태(food price crisis),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주춤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무역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격도 다시 상승했으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중심의 세계 경제 침체가 무역 시장과 원자재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후로는 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변동이 농식품 무역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농식품 무역 시장은 다시 성장세를 보였다.

고소득 국가들이 농식품 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림 1). 2000년 이후로 고·중소득 국가와 저·중소득 국가가 세계 농식품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25%에서 2018년 36%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저소득 국가가 세계 농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1) 본고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2020년 발간한 보고서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중에서 농식품 시장 트렌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됨. 여기서는 세계 농식품 무역 시장을 변화시키는 동력인 소득 성장, 인구 성장 및 인구통계적 변화, 기술발전, 정책 등이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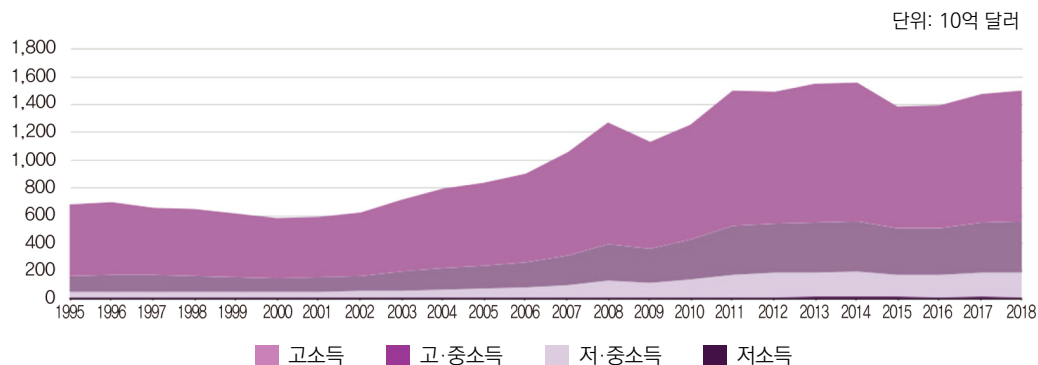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연구원(wordtime84@krei.re.kr).**

본고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2020년 발간한 보고서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중에서 농식품 시장 트렌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됨.

2008년부터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 농식품 수출과 수입의 성장세는 1995년~2007년에 비해 주춤하였는데, 특히 고소득 국가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그림 2>. 고소득 국가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저소득 국가도 시장의 수요 감소와 농식품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았다. 2009년과 2011년 사이의 고·중소득 및 저·중소득 국가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정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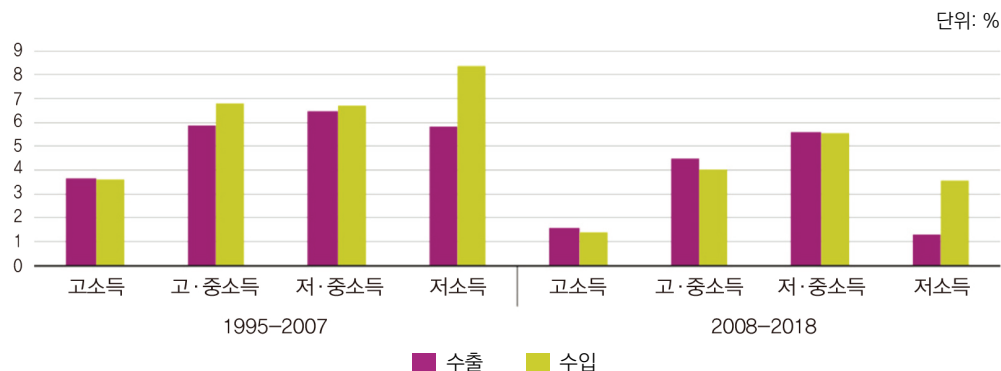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의 추세를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농식품 수출 성장률이 수입 성장률보다 높았고, 중·고소득 및 저·중소득 국가의 경우 수입 성장률이 수출 성장률보다 높았다.

〈그림 1〉 농식품 수출량 변화



주: 모든 수치는 2015년 가격에서의 무역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국가 집단은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을 따름.
자료: FAO(2020), p.3.

〈그림 2〉 농식품 수출, 수입, 평균 연간 성장률



주: 수치는 2015년 가격에서의 3개년 평균 무역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국가 집단은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을 따름.
자료: FAO(2020), p.3.

1.2. 농산물과 식품 영역의 구분을 통한 분석

전체 농식품 무역 시장은 가공처리 되지 않은 농업 생산물을 의미하는 농산물 시장과 가공처리가 이루어진 모든 상품을 포함하는 식품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농식품 무역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3).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식품은 고소득 국가에서 거래되고 있다. 모든 소득별 국가 집단은 평균적으로 농산물의 수입량보다 식품의 수입량이 더 많았다(그림 4). 고·중소득 및 저·중소득 국가들은 수출 중심의 가공산업을 잘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식품의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았다. 저소득 국가는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국가가 원자재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농식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3〉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량 변화, 1995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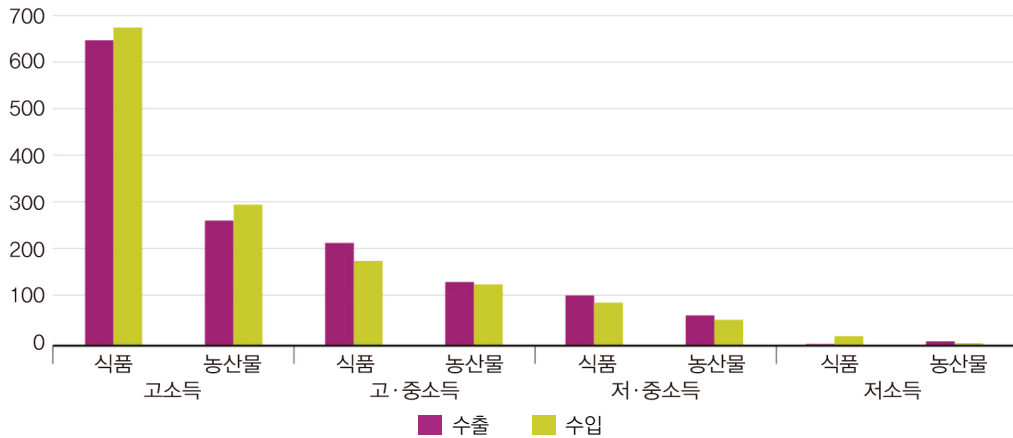


주: 농산물은 가공처리 되지 않은 농업 생산품을 의미하고, 식품은 가공처리된 모든 상품을 포함함.

자료: FAO(2020), p.4.

〈그림 4〉 소득에 따른 국가 집단별 수출량과 수입량(2016-2018년 평균치)

단위: 10억 달러



주: 농산물은 가공처리 되지 않은 농업 생산품을 의미하고, 식품은 가공처리된 모든 상품을 포함함.
자료: FAO(2020),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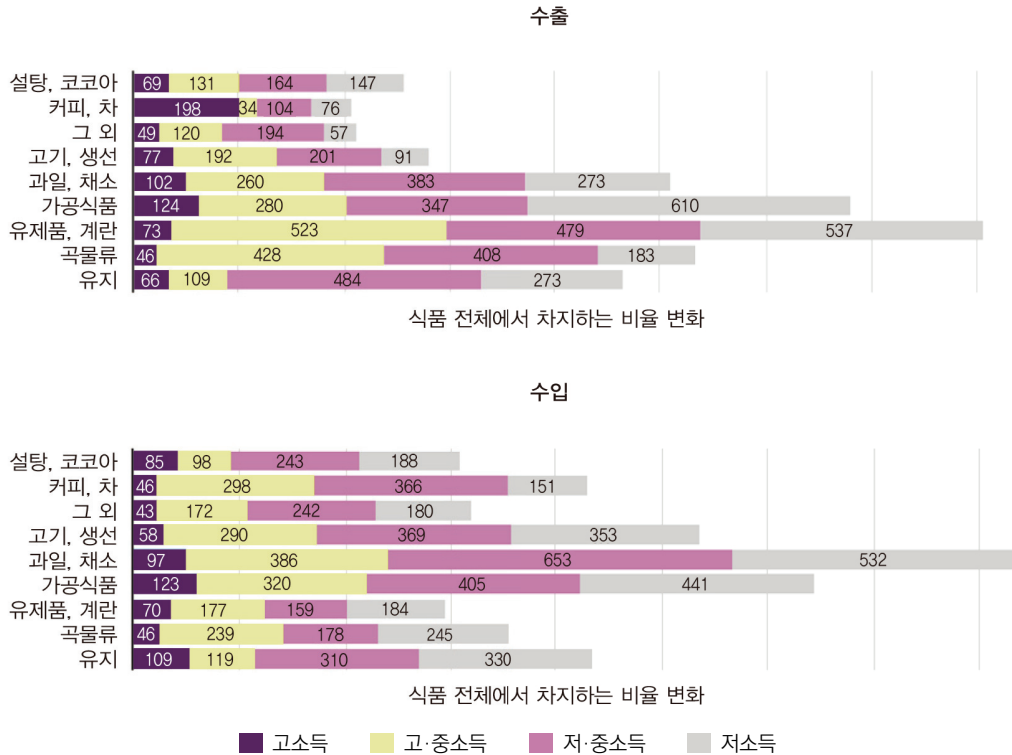
식품 무역만 따로 분석해보면,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9가지 전체 식품 영역²⁾에서 무역량이 증가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전체 식품 영역 무역량은 비교적 변화가 적었으나, 중위 또는 저소득 국가에선 수입량과 수출량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중위 또는 저소득 국가의 식품 영역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과일과 채소 수출량은 저·중소득 국가에선 4배, 저소득 국가에선 3배 증가하였다. 가공식품의 수출량은 저·중소득 국가에선 3배, 저소득 국가에선 6배 증가하였다. 유제품과 계란의 수출량은 중위 또는 저소득 국가 전반에 걸쳐 5배 증가하였고, 유지 수출량은 저·중소득 국가에선 5배, 저소득 국가에선 3배 증가하였다. 고·중소득 국가의 경우, 유제품과 계란의 수출량은 5배, 곡물류의 수출량은 4배 증가하였다(그림5).

소득이 증가할수록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의 소비량은 줄고, 보다 영양이 풍부한 고기, 유지, 설탕, 과일과 채소 등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저·중소득 국가에서도 고기와 생선,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과 같은 고가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2) 9가지 식품 영역으로는 1) 설탕과 카카오 2) 고기와 생선 3) 과일과 채소 4) 커피와 차 5) 가공식품 6) 유제품 및 계란 7) 곡물류 8) 유지(지방, 지방유 등) 9) 그 외가 해당됨.

〈그림 5〉 소득에 따른 국가 집단별 식품 영역별 수출량과 수입량 변화(1995년-2018년)

단위: %



주: 모든 수치는 2015년 가격에서 3년치의 무역 가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FAO(2020), p.7.

2. 세계 농식품 시장의 동력

국제 무역은 전 세계 식품의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여 세계 경제를 고도화하고 각 국가의 시장을 확장시킨다. 각국이 어떤 농식품을 어떻게 무역하는지는 국가별 기후 상태뿐만 아니라 주요 4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 발전을 결정짓기도 하는 국제 농식품 무역 시장의 4가지 동력은 소득 성장, 인구 성장 및 인구통계적 변화, 기술발전, 정책 등이다. 인구 성장 및 인구구성 변화는 소득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식품 수요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변화된 식품 수요 양상은 생산방식, 시장과 무역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발전도 동반된다. 식품 시장의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개방된 시장'으로 특징지어지며, 무역 장벽 축소 정책과 기술적 진보가 거래 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소통을 손쉽게 만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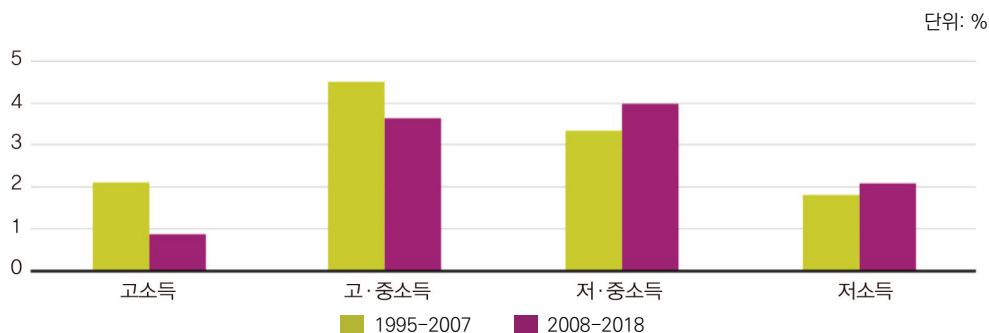
시장의 개방성은 더욱 촉진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식품 공급, 수요, 무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1. 소득 성장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득 정도가 무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각국의 소득 정도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고 무역량이 증가했던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의 국가별 소득 성장 정도를 확인해보면, 무역량 증가에 따른 이득이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저·중소득 및 고·중고소득 국가의 소득 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성장률보다 높았는데, 이는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의 경제 성장이 중위소득 국가들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저소득 국가의 성장률은 둔화하였고, 이는 국가별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도 소득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도화된 금융시스템을 활용하고 신용거래가 더 활발한 고소득 국가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하였다(그림6). 고·중소득 국가도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소득성장 둔화를 겪었으나, 고소득 국가에 비해 그 범위와 정도가 덜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저·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는 상대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다. 이러한 소득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농식품 무역 시장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6〉 1995년-2018년 GDP 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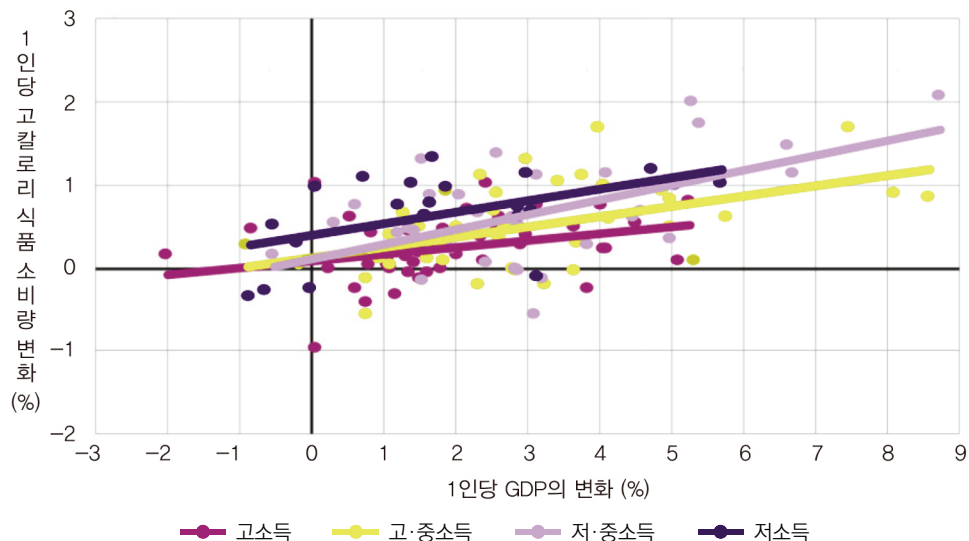


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달러)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FAO(2020), p.12.

사회경제적 변화로 소득에 변화가 발생하면, 국민의 식품 소비 패턴도 함께 변화한다. 이러한 소득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영양 전이(Nutrition Transition)’라고 한다. 영양 전이의 초기 단계에는 식량불안의 감소와 음식 섭취량 증가가 소득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단계에선 전형적으로 식단의 많은 부분을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다음 단계의 영양 전이에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고칼로리 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영양상태와 건강도 좋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지방, 설탕, 가공식품의 소비량 증가도 함께 수반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득이 더 증가하면서 마지막 단계의 영양 전이에 이르면, 오히려 고칼로리 식품의 소비는 감소하고 양질의 지방, 과일과 채소, 다양한 곡식류의 소비가 증가한다. 영양 전이와 소득 증가과정을 거치면서 가계 지출 비용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앵겔법칙).

〈그림 7〉의 데이터는 영양 전이 단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선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1인당 고칼로리 식품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 소득 성장이 가속화하는 저·중소득 국가에선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고·중소득 국가에선 이러한 현상이 점차 둔화하고, 고소득 국가에선 소득 성장과 고칼로리 식품 소비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

〈그림 7〉 소득과 소비 성장률 간의 관계(1995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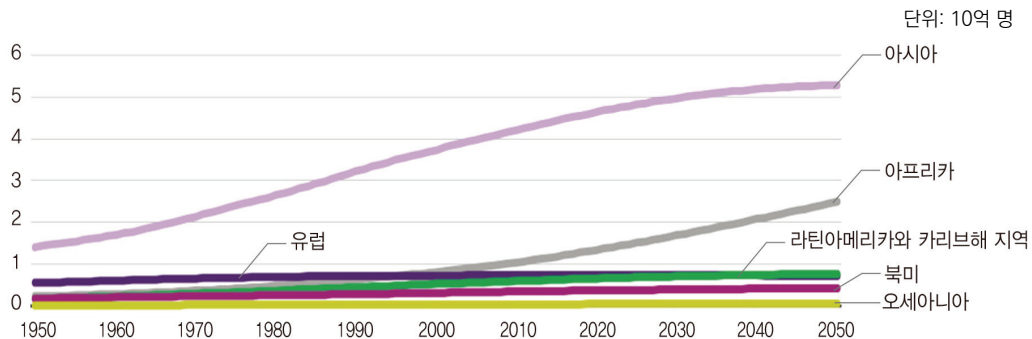
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달러)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FAO(2020), p.12.

2.2. 인구 성장 및 인구통계적 변화

인구 성장과 인구통계적 변화는 식품 소비, 무역,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 성장은 식품 소비와 무역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적 변화는 소비 및 거래되는 식품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국가에서 인구가 성장하면 무역량은 증가한다. 국가마다 인구 성장 속도가 다르며, 식품은 인구 성장 속도가 적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빠른 국가로 수출된다. 예를 들어, 인구 성장 속도가 빠르며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1인당 농업 생산량이 낮은 국가들은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그 성장 속도가 이미 둔화하기 시작했으나, 2050년의 아시아 인구는 5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8>. 아프리카 인구는 2050년 25억 명까지 증가하여, 식량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북미, 오세아니아의 인구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을 보이고, 유럽은 2050년까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1950년~2050년 인구수 변화 및 전망(2018년~2050년 인구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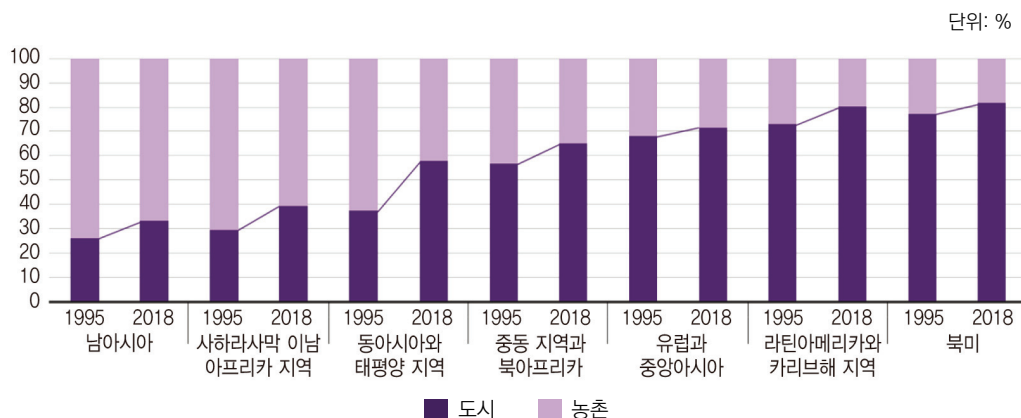
자료: FAO(2020), p.18.

도시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비패턴과 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쉽게 저장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공식품 산업이 성장하였다. 또한 도시 소비자들은 비교적 소득이 높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최대한 적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경향도 강하여, 가공식품의 소비와 외식이 증가하였다.

도시화는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과 자가용의 증가, 냉동시설 활용의 용이함, 광고 노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새롭게 진화된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과 같은 고가상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잠비아 도시민의 자가용 소유가 증가하면서 대형마켓에서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가공식품을 저장하고 판매하게 되었다.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유럽, 중앙아시아는 이미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졌다<그림 9>.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선 1995년과 2018년에서 도시화가 가장 급격히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가 덜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현상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하는 데 90년이 걸렸다. 반면 브라질과 한국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림 9〉 지역별 농촌 및 도시 인구 비율 변화(1995년-2018년)



자료: FAO(2020),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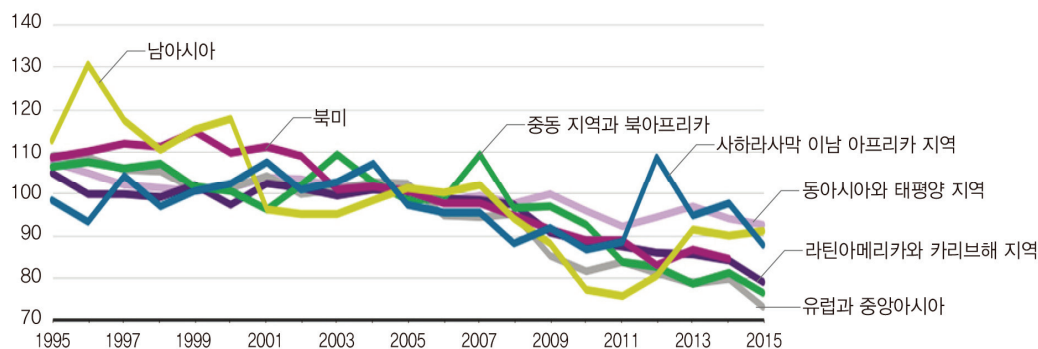
2.3. 기술적 진보, 거래 비용과 무역정책

기술적 진보는 기반 시설과 물류센터의 질을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거래 비용이 감소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비용도 감소하여 무역 시장 시스템이 고도화되었고, 가치사슬의 세계적인 통합도 이루어졌다. 기술적 진보가 가치사슬의 비효율성을 현저히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평균적으로, 교통비용과 무역정책의 변화로 결정되는 거래 비용은 제조상품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에서도 감소하였다(그림 10).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통 기반 시설의 향상이 거래 비용을 하락시켰으나, 그 속도가 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2015년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선 농식품 거래비용이 11% 감소한 반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선 33% 감소하였다.

〈그림 10〉 농식품의 거래 비용 변화



주: 타국과의 농식품 무역에 드는 모든 거래(양자간 거래) 비용을, 해당 상품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과 비교하여 측정함. 거래 비용에는 교통 비용, 관세 등이 포함되었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인 언어 장벽, 국경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음. 거래 비용은 각 지역의 수출업자가 부담한 거래 비용을 단순히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의 편의를 위해, 수출업자가 거래한 국가를 3개 국가로 한정하여 계산함. 즉, 미국 중 멕시코, 유럽 중 독일, 아시아 중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 비용만 확인함.

자료: FAO(2020), p.19.

농식품 무역에 있어서 거래 비용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관세 및 비관세 정책, 화물, 정보, 통화,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한 거래 비용이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총 거래 비용이 1% 감소하면 세계 무역량은 2~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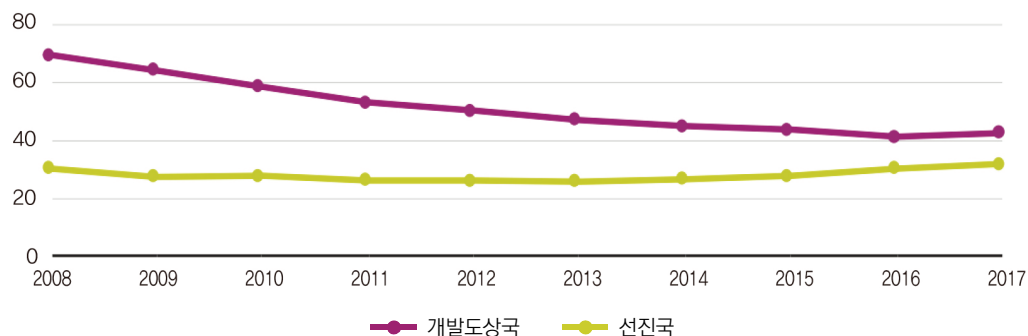
동시에, 기술적 진보는 의사소통 비용을 낮추고 거래의 편의성도 높였다. 예를 들어, 쌍방 거래에서 의사소통 비용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을 통해 수입업자의 호가를 절반으로 낮추면 총 쌍방 거래가 42.5% 상승한다. 쌍방이 동일한 물건을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조정이 필요한 거래인 서로 다른 물건을 거래할 때 그 효과가 30% 이상 더 크다.

인터넷 역시 무역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낮은 비용으로 소통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이후로, 인터넷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54%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무역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평균적으로 수출업자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10% 증가하면 무역 거래가 약 2% 증가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고속 데이터 통신망 설치 비용이 낮아졌고, 개발도상국에서는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그림 11).

〈그림 11〉 광대역 통신망 이용 비용 추이(의사소통 비용)

단위: 구매력평가지수(PPP)



주: 구매력평가지수(PPP)은 각국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환율임. 해당 그래프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동일한 광대역 통신망을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을 상대가격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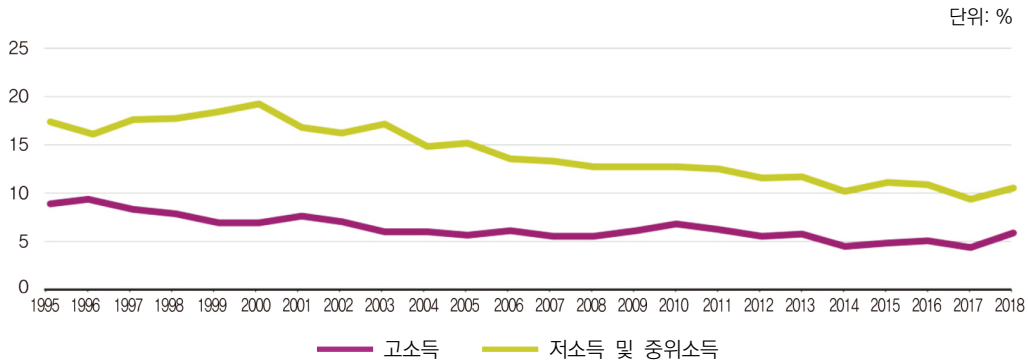
자료: FAO(2020), p.19.

무역정책도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1995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과 WTO 설립 이후 시장 개방의 물결이 거세졌고, 지역 간 무역 협정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관세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고, 국가 간 비관세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었다.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선 1995년 전체 수입 농식품 중 약 17%에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엔 약 10%에 관세를 부과하였다(그림 12). 고소득 국가에선 전체 농식품 중 관세를 부과한 상품의 비율이 1995년 9%에서 2018년 6%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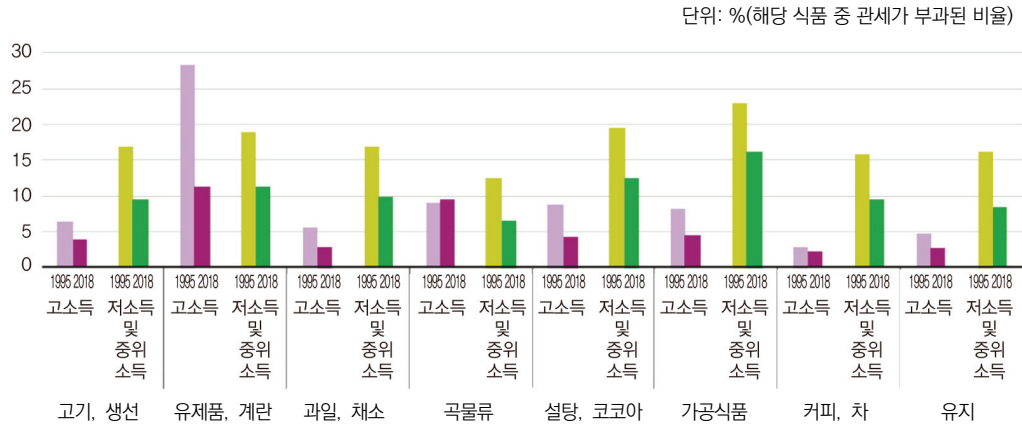
관세 부과 정도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그림 13). 커피와 차, 유지, 과일과 채소 등은 비교적 관세 부과 비율이 낮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에선 곡물류, 유제품과 계란의 수입엔 비교적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가공식품 수입에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림 12〉 전체 농식품 중 관세가 부과된 농식품 비율 추이



자료: FAO(2020), p.21.

〈그림 13〉 식품 종류에 따른 관세 부과 비율 추이



자료: FAO(2020), p.21.

3. 농식품 시장의 전환

위에서 언급한 무역 패턴과 식생활을 변화시킨 요소들은 식품 시장과 가치사슬도 변화시켰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지와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면서, 식품 소매시장의 중요성이 커졌다. 20세기부터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식품 소매업이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선 슈퍼마켓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선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은 처음엔 건조된 상품만 판매하다가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선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농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선 슈퍼마켓이 식품소매업을 거의 잠식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민의 의식변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재평가 등이 맞물리면서 로컬푸드 시장 등 소매시장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등장하였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같은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전에 슈퍼마켓이 전통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상품을 집까지 배달해줌으로써 소비자의 거래 비용도 감소시켰다.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단점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슈퍼마켓 체인들이 전자상거래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전에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농식품을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슈퍼마켓과 전략적 협약을 맺거나 오프라인 상점을 오픈하기도 하였다.

농식품 무역과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경쟁도 심화되는데,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가격은 낮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접근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는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이 과일, 채소 등의 고영양의 음식을 손쉽게 구매하도록 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화, 세계화가 많은 국가에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의 소비를 늘리고 비만, 영양과다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저중소득 국가에선 국민의 비만과 영양과다 문제가 영양결핍 문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시사점

세계 농식품 무역 시장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농식품 무역량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가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위소득 국가는 가공산업을 잘 발달시킨 영향으로 식품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국가도 점차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가 식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세계 농식품 무역 시장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력은 소득 성장, 인구 성장 및 인구통계적 변화, 기술발전, 정책 등이다. 소득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가공식품의 거래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기술적 진보와 무역 장벽 축소 정책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시장의 개방성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2020.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